



The 3rd
Junior
Youth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 ·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최 제3회 중학생영어토론대회

- 참가신청기간 : 6월11일(월) ~ 7월18일(수)
- 대 회 일 시 : 8월18일(토) ~ 8월19일(일)
- 대 회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 애경홀, 인문관, 사범대
- 참가방식 : 대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홈페이지 : www.englishdebatingchampionship.co.kr
- 문의전화 : Tel. 02)398-8763~5, 8761

◇ 영어토론 지도선생님들과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문의를 받습니다.
 ※ 참가 수용팀은 100개팀으로 마감합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Certificate와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 대회 본선, Top speaker, EFL리그 부문 입상팀에게는 상금, YTN 사장상, 한국외국어대학 총장상이 수여됩니다.

시간안내 '영어토론 절대 어렵지 않아요'

영어토론 대회 참가자 30명이 말하는 노하우!
 세계를 향한 도전 / 열정 / 자신감 / 우정의 Debate

YTN역음 / A5신국판 / 전체 312쪽 / 값 12,000원
www.kyobobook.co.kr 전국 유명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YTN

2012 AUGUST Volume.99

발행인 배석규 | 편집 홍보팀 | 100-99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YTN타워
 TEL 02-398-8000 | 제보 02-398-8585 | 휴대폰 YTN 뉴스 청취 200-2424

ZOOM IN
YTN 사이언스 방송 5년 / YTN 웨더 1년

부서탐방 차량관리실

HOT ISSUE
궁금하다, 서울타워 / 터치스크린
순회 특파원 & 경력 앵커

취재 · 제작기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통일 24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24 YTN

1995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24시간 방송 뉴스시대를 연 YTN

보신각종 타종과 함께 개국한 YTN이 채널번호 24번으로 시청자에게 다가선지 어느덧 17년...

‘24시간 뉴스 = ch 24’의 공식을 이룬 ‘한국의 뉴스채널’ YTN
YTN의 채널번호가 드디어 디지털방송까지 모두 24번으로 통일됐습니다.

대한민국 방송사상 최초로 채널번호 통일을 이룬 YTN

이제 전국 어디서나, 어느 매체에서나 ‘가장 빠르고 정확한 YTN 뉴스’를
채널 24번에서 만나십시오.

Contents

- |02| **커버스토리**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24 YTN
대표 MSO의 기고_ 시청자가 YTN을 원하고 있습니다
- |06| **ZOOM IN 1. YTN 사이언스 방송 5년**
유네스코 아태본부장 특별기고
〈사이언스24〉 진행_ 과학상식과 정보를 배우는 즐거움
프로그램 탐방/제작_ 김병준의 판도사
사이언스 서포터즈_ 한 달간의 배움과 경험
- |14| **ZOOM IN 2. YTN 웨더 1년**
외부기고_ 기상청예보국장 1년의 의미와 성과, 미래는
YTN웨더 1년 그리고 기상캐스터
- |18| **부서 탐방. 차량관리실**
부릉부릉~ 취재의 시동을 걸어라!!!
- |20| **핫 이슈 1. 궁금하다 ... 서울타워**
YTN서울타워 이곳저곳
- |22| **핫 이슈 2. 터치 스크린**
기대효과와 활용 등
- |24| **핫 이슈 3. 순회 특파원 & 경력 앵커**
특파원 각오와 다짐, 포부 등
- |26| **취재 · 제작기**
특종상 금상 취재기
특종기_ 류충섭 유럽 특파원
프로그램 제작기_ 귀농 특집
- |32| **콘텐츠 확대**
YTN라디오_ 김갑수의 출발 새 아침
디지털YTN_ 지식개발원 개원

‘숫자 24’의 의미

‘24’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루의 기준 24시간이다. 24시 즉 0시는 하루를 마감하는 시각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24’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기적으로 만나는 24절기에도 연관된다. 매년 1월 초 찾아오는 소한을 시작으로 2월 초의 입춘, 6월 하순의 하지, 12월 말 동지까지... 일년 365일을 24등분해 15일 간격으로 찾아오는 24절기는 농사는 물론,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서 유익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누구나가 갖고 싶어하는 소중한 금. 99.9999%의 순금을 지칭할 때도 우리는 숫자 24를 쓴다. 바로 24K. 금은 24K 순금을 기준으로 해서 금의 함량이 줄어들수록 24단계로 숫자도 작아진다..

TV 모니터에서 색을 표현할 때 빨강(R), 초록(G), 파랑(B)의 3원색을 사용한다. 여기서 색상은 RGB의 bit-depth, 비트 농도로 표현하는데, 24bit면 2의 24승, 즉 16777216 색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 완벽한 컬러(True Color)라고 부른다.

이밖에도 숫자 24는 선과 약,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쓰였다고 한다. 즉, 숫자 24는 시간, 생활, 지표, 소중한 색, 기준 등 24시간 뉴스채널의 이미지를 잘 대변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겠다.

뉴스채널의 최강자 24번, YTN



전용주 | 씨앤엠 전무이사

최근 한국의 방송미디어 환경은 SO 측면과 PP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이블 SO사업자들은 과거 아날로그 방송하의 지역 독점의 안정적 사업 환경이 현재 통신사업자들의 신규 진입으로 IPTV와 경쟁함으로써 디지털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가입자의 디지털방송 가입자로의 전환을 통한 이탈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PP 사업자들은 YTN을 포함한 몇몇 소수의 전문채널이 주도하던 채널사업의 영역이 4개 거대 종편 및 신규 보도채널의 진입으로 더욱 혹독한 시청률 경쟁과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YTN 입장에서 디지털 가입자 확대에 따른 디지털 대역에 대한 채널

positioning 과 신규 보도 채널 및 보도기능을 추가로 가진 거대 종편들에 대한 시청률 대응은 향후 경영 전략 수립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 것입니다.

과거 케이블 가입자가 미미하고 지상파 채널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당시 YTN이 설정한 24시간 뉴스만을 방영한다는 전문 채널운영전략은 초기의 많은 도전과 희의를 잘 극복하고 케이블 가입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케이블 가입자 성장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아날로그 방송시대의 케이블 SO사업자들과 YTN의 오랜

기간에 걸친 Win-Win 관계는 디지털 방송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된 협력관계로 진화되고, 다양한 사업 제휴 아이디어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수도권 최대 케이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씨앤엠이 케이블 방송 업계 최초로 YTN을 디지털 방송 대역에서 24번으로 통일한 것은 경쟁플랫폼의 채널편성에 대한 효율적 대응측면에서도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며,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 전환시 디지털 방송 서비스에 대한 채널 친숙도를 높인다

는 차원에서도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올해 대부분의 케이블SO들도 디지털 방송대역에서 YTN을 24번으로 통일하고 있다는 것은 그간의 케이블SO들과의 협력,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향후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아날로그 방송시대의 뉴스채널의 최강자 24번 YTN이 디지털 방송시대에서도 24번으로 연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종편 및 신규보도채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청률이 향상된 YTN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금번의 호의적인 케이블SO들의 유통환경 지원을 계기로, 시장경쟁의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블SO들과 YTN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단순히 유통 번호만을 협의할 게 아니라 케이블 가입자 서비스의 유지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협의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SCIENCE 과학콘텐츠 공급은 아태지역 과학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무려 530여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UNESCO 아태본부장에 취임한 김광조 본부장은 YTN SCIENCE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과학콘텐츠 공급 프로젝트에 대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정보과학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YTN SCIENCE-UNESCO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Q.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UNESCO 아태본부장으로 취임하신 지 3년이 지나셨는데 그동안 어디에 역점을 두고 UNESCO 아태본부를 운영해 오셨는지요?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UNESCO 10개 지역 본부 중 가장 큰 아태본부장을 맡게 된 것은 제 개인적인 능력이라기 보다 교육을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저력을 높이 평가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 UNESCO 회원국 중 저개발 국가들을 상대로 교육에 대한 투자만이 빈곤의 고리를 끊는 최상의 투자라는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회원국 중 경제적 여건이 나은 선진국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김광조 | 유네스코 아태본부장

더욱 자신 있게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저개발국가 교육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쏟을 생각입니다.

Q. UNESCO는 개발도상국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과학, 생태, 환경, 바이오 분야 등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SCIENCE 콘텐츠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춘 YTN SCIENCE와 UNESCO 아태본부가 펼치는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린다면?

YTN SCIENCE가 그동안 제작한 좋은 방송 프로그램을 아시아인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 국가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돼야 합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아시아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다음으로는, YTN SCIENCE 콘텐츠 공급 대상을 동남아시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바누아투, 사모아, 피지, 솔로몬제도 등 남태평양 섬나라에까지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과학이나 교육에 대한 욕구가 큼니다. 한국



유네스코 아태본부를 방문해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하는 YTN SCIENCE팀

YTN+UNESCO

을 개발 모델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곳곳에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변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UNESCO가 가진 비전과 임무가 YTN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YTN이 이제는 시청자를 국내에 국한하지 말고 전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람들, 나아가 지구 차원에서 공유하는 비전 가운데 일하는 것은 YTN에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YTN SCIENCE 프로그램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영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력 사업이 YTN과 UNESCO 비전을 달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Q. UNESCO 아태지역의 학생들은 과학 교육에 대한 열망은 크지만, 과학 실험 장비와 교사 부족 등 배움의 기회가 적은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할 방법이 과학콘텐츠 방송이라고 보는데?

아태지역의 많은 나라, 대부분 국가들이 저개발 국가이지만 교육과학에 대한 욕구는 큼니다.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원과 땅은 많고 잠재력은 크지만, 기술과 인력, 자본은 부족하고 생활 수준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가들에 IT, 방송 기술을 활용해 YTN SCIENCE의 과학콘텐츠를 공급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과학콘텐츠를 보급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인력을 키우는 일도 중

요합니다.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일을 할 때입니다. 또, 아시아 각국의 여러 프로그램을 종합해 방송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Q.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과학채널 YTN SCIENCE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된 감회는?

한국인으로서 동남아, 태평양 모든 사람을 위해 과학콘텐츠를 보급하는 일에 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UNESCO의 가장 근본 임무가 교육문화과학 등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평화의 씨를 뿌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평화롭고 조화롭게 번영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협력 사업이 UN과 UNESCO 임무에 잘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대담 류희림 | 사이언스TV 본부장
정리 심재훈 | 사이언스TV 기자



어느덧 사이언스 뉴스 앵커를 맡은 지도 반년이 훌쩍 넘었네요. 저는 과학과 수학이 싫어 고등학교 때 문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했지요. 과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데 그런 제가 사이언스 뉴스를 진행하면서 뒤늦게 과학에 흥미를 갖게 됐다면 믿으실까요? 그리고 과학이 절대 어렵고 먼 분야가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의 분쟁, 북한이 발사한 것이 왜 실용위성이 아닌 로켓인지, 이런 국제적인 사안을 비롯해 각종 질병의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처음에는 40분간의 시간 안에 단신과 리포트뿐 아니라 전화 연결과 출연자와의 인터뷰까지 뽁뽁한 구성에 얼마나 부담이 되고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긴장을 해서 뉴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몰랐다면 지금은 재미에 빠져 40분이 마치 4분처럼 느껴지지요. (물론 조금 과장해서요^^)

어느 정도 진행에 부담감이 덜해진 지금은 중간 중간 나가는 리포트와 완제 화면들을 마치 시청자가 된 것 마냥 푹 빠져 보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더니 '堂狗風月(당구풍월)'이라는 말처럼, 어느 정도 과학상식이 쌓여간 새로운 저를 발견합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메니에르라는 병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생소한 그 이름에 인터넷을 뒤져가며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봤는데 설명이 어려워 막막하고 답답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 사이언스 전화 연결 시간에 메니에르의 원인과 평소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를 의사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대본에 없는 질문까지 해가며 내용을 메모해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참 뿌듯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스스로에게 답답했던 부분도 그제야 해소됐습니다. 사이언스 뉴스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평생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겠죠.

YTN 사이언스가 얼마 전 유네스코와 협약을 체결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프로그램 교류가 있을 거라는 소식이 있더군요. 진행자로서 어찌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기쁨이자 고마운 존재가 된 것처럼 다른 시청자들, 크게는 세계인들이 YTN 사이언스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저도 앞으로 더욱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뉴스 진행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YTN 사이언스와 또 이세나에게 많은 격려와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세나 | <사이언스 24> 앵커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24> 시작합니다.”

요일별 특화프로그램으로
풍성해진 <사이언스 24>

과학에 대한
흥미와
과학 상식이
쌓입니다

큰 호기심으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앵커가 되고 나서 더 갈급해진 건, '배움'이었습니다. 더 보고 더 알아야 균형적인 시각을 가진, 자질 있는 앵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도 배움의 자세로 임하는 각오가 있었기에, 사이언스 뉴스가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게 과학계 뉴스는 부족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큰 호기심으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즐거움이 쏠쏠하기도 했죠.

YTN에 입사한 지 어느덧 1년이 되고, 사이언스 뉴스 진행도 9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과학 분야가 우리 일상생활을 많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수많은 과학자, 연구자들의 노고가 우리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이언스24는 매일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사이언스24가 개편을 단행해 한층 더 풍부한 콘텐츠와 그래픽이나 자막도 보완해 더 세련됐습니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많은 PD, 과학 전문기자, 스태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믿음이 더 큰 애착을 느끼게 합니다.

사이언스24는 요일별로 특별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학 전문기자와 외부 인사들이 요일별로 출연해, 과학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쉽고 유익하게 전달하려고 애씁니다. 월요일은 '톡톡IT' 코너를 마련해 새로운 기술을 심층 취재해 전하고, 화요일은 '생생 과학현장'을 통해 과학계 종사자들의 연구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수요일은 '사이언스 북카페' 시간을 통해 교보문고 직원이 직접 나와 과학 관련 도서를 소개해주지요. 목요일은 '문화, 과학과 만나다' 코너로 공연 속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를 찾아내고, 금요일은 '특허&이슈' 시간을 마련해 특허청의 대변인과 함께 특허와 발명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렇게 과학콘텐츠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 전하는 코너들을 통해, 어려운 과학지식을 시청자들이 흥미롭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유엔 산하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본부와 YTN 사이언스가 함께 과학콘텐츠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이언스TV가 콘텐츠를 더 보강하여 과학 한류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해봅니다. 또 올해는 나로호 3차 발사, 4개 위성 발사 등 굵직한 대형 이벤트가 준비돼있죠. 이렇게 큰 행사가 있는 만큼 사이언스24도 잘 담아내, 2012년에 한 단계 도약하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진주 | 앵커팀



이보다 더 재미있을 순 없다!

막강 MC와 패널 그리고 열혈 제작진이 뭉쳤다!

“안녕하세요,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김병준입니다.” 익숙하고도 구수한 인사가 분위기 좋은 카페 안에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분주한 리허설이 시작된다. 진지함과 유머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변호사출신 MC 김병준, 생기발랄 리포터 김새아, 잡학박사 칼럼니스트 함영민, 그리고 혈기로 푹푹 뭉친 PD, 작가 등 외유내강 제작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는 가족들. 소박한 군단이지만, 열정만큼은 어떤 초대형 버라이어티 제작진 못지않게 뜨겁다. 치열하고도 화기에애한 녹화현장. MC 김병준, 그의 숨겨진 모습은? 리허설 후,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녹화는 시작 되는데...

사과껍질은 깎아 먹어야 하나요 그냥 먹어야 하나요? 아픈데 약 먹기 싫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의 누구나 한 번쯤은 공감하고 궁금해했을 이야기를 무겁지 않게, 그리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매력 포인트.

그렇기에 김병준 MC의 뭉이 단연 클 수밖에 없는 데... 그는 시청자를 대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멋진 조언을 시인처럼 펼쳐놓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유머와 배려는 잃지 않는 여유로 프로그램을 잘 이끌고 있다. 그가 웃음과 정보를 함께 전해야 하는 '판도사'에 꼭 맞는 적임 MC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녹화현장에서 그의 재치 있는 입담은 사실, TV로 방송되는 것보다 더 배꼽 빠지게

웃긴다. 하지만 방송시간의 제약 때문에 혹은 너무 과하게 웃긴 나머지, 제작진들의 '자제 심의'를 거쳐 편집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아쉽다. 그의 주옥같은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다 살리려면 아마 방송시간이 두 시간은 돼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편집하는 PD들이 항상 고생한다는 후문이...

패널의 힘, 두 남녀가 펼치는 과한(?) 설전의 비밀!

판도사의 두 패널, 생기발랄 김새아와 박학다식 칼럼니스트 함영민도 프로그램을 든든하게 이끌어 나가는 힘.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발랄하게 질문을 던지는 김새아와, '유식함'을 무기로 시청자들에게 고급정보를 전달하는 함영민은 프로그램의 좌우 균형을 훌륭하게 잡아주고 있다.

이들의 활약은 특히 <대결 토크>에서 빛나는데, 감기약이었다. 없다, 미인은 잠이 많다 그렇지 않다 등의 주제를 놓고 매회 한바탕 설전을 벌이는 중이다. 사실 처음에는 제작진의 의도와 함께 가볍게 시작된 언쟁이었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그들의 대결은, 혈전을 방불케 하는 경쟁으로 변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

주로 현장에 나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는 김새아는 국과수 등 전문 연구기관을 다녀오는 함영민에게 논리에 밀리기 때문에 승률이 높지 않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나도 국과수 보내주세요~”를 외치는 그녀의 귀여운 투정이 녹화장에서 매번 들려오고 있다.

시청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해주려는 열정과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마음이 승부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평소에는 친남매를 방불케 할 정도로 사이가 좋은 찰떡궁합 패널이다.

앞으로의 <판도사>도 기대해 주세요~

웃음과 설전만 있는 건 아니다. <정보토크>에서는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나 속설들을 명쾌하게 뒤집기도 하고 푸짐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며 유익한 프로그램으로의 본분에도 충실해지고 있다.

카페인, 약, 감기, 인체 등 세상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으며, 모든 호기심이 프로그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 <김병준의 판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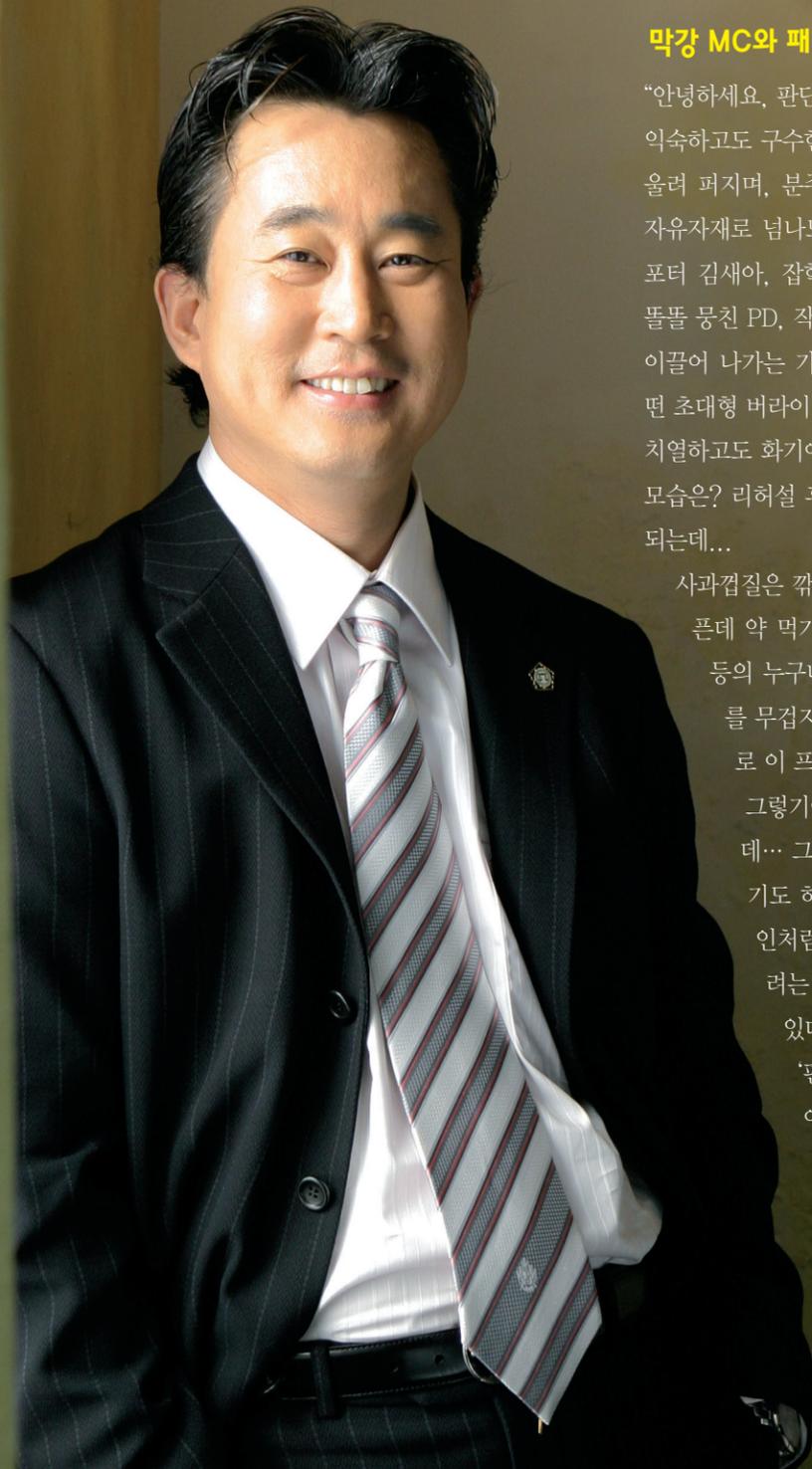
앞으로는 생활, 경제, IT 등 소재를 전반에 걸쳐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그야말로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해 나갈 것이다. MC와 패널, 제작진 모두 한 주, 한 주 생생한 정보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밤새는 노력도 마다치 않으니, 앞으로도 판도사의 매력 속으로 쭈욱 빠져 주시길.

덧붙여...

한 포털사이트의 '파워블로거'이기도 한 함영민.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판도사>에 대한 포스팅이 매주 올라오고 있으니, 검색창에서 '판도사'를 검색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녹화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을 보고 싶다면 담당 피디에게 연락하면 된다. 장비를 함께 날라 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동행은 환영이라고 하니, 담당 피디에게 지금 바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아! 이동의 한계 때문에 인원은 선착순!

김수민 | 사이언스TV <김병준의 판도사> 작가



나의 첫 방송사고(?)



학원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가기 위해 서울역 앞을 지날 때마다 '저 큰 YTN 타워 안에 내가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 라고 혼잣말하던 것이 바로 지난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방송사 게시판을 두리번거리다가 <YTN사이언스 서포터즈 2기> 모집 공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낱같은 기대를 하고 지원서를 냈다가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는 정말 실감이 안 나서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었던 대학생에게 YTN사이언스 서포터즈는 마치 꿈이 다 실현되기라도 한 듯 설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서포터즈 경험은 저에게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나가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쿵쿵 뛰는 가슴으로 달려갔던 서포터즈단 발대식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하여 저는 벌써 세 가지나 얻었습니다. 실무에서 방송 일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그 속에서 진로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인생의 멘토이신 선배님을 만났으며, 서로 힘이 되어주고 길을 함께 할 동지

들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던 저에게 선배님께서는 여러 번 조언을 주셨습니다. '네가 정확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라'며 던져 주신 질문은 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저는 스스로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전문 방송인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래픽 디자이너로 저의 진로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까지 선배님은 조언은 물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다른 선배님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후배들이 이 글을 본다면 꼭 YTN사이언스 서포터즈를 지원하길 추천합니다.

그동안 방송국이라면 녹화방송 구경 경험이 전부였던 저에게 방송국 내부에 들어가서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만들어지는지를 직접 체험한 것은 마치 처음 IMAX 영화관에서 3D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놀라움 자체였습니다. 아나운서와 기자, 촬영 감독님께서 방송을 진행하는 스튜디오에서부

터 영상을 제작하는 부조정실, 영상을 최종 편집하는 종합 편집실까지 매번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때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사이언스 24 방송을 보기 위해 급하게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핸드폰은 꺼야 하고 말도 하면 안 된다는 주의를 받은 뒤,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뉴스가 진행되는 모습을 조용히 프롬프터 뒤에서 지켜보던 중,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그런지 배에서 김새가 나타났습니다. 계속 힘을 주고 신경을 썼지만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 제 배는 꼬르륵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계속 참고 있어서 그런지 같이 방송을 보던 서포터즈 친구를 비롯해 프롬프터를 넘겨주시던 조연출분에게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창피함은 그렇다 치고 혹시 제 배에서 난 잡음이 방송에 들어갔으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웠지만 다행히 그렇게까지 큰 소리는 아니었던지 방송사고(?) 없이 이어졌습니다. 앞

으로 녹화할 때 꼭 밥을 먹고 들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매일 진행되는 방송이지만 잠시만 탄생각을 하면 금방 방송사고가 날 수 있으니 늘 긴장하라고 한 PD님의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서포터즈로서 제 역할은 대중들에게 YTN사이언스를 더욱 널리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친숙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이미지와 영상을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관련 UCC를 제작하여 SNS나 동영상 전문 사이트를 통해 홍보 활동을 할 것입니다. 또한 YTN사이언스에 보탬이 되는 진정한 서포터즈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승민 | YTN사이언스 대학생 서포터즈 2기
(서울여대 콘텐츠디자인학과 3년)

제2기 대학생 서포터즈단 발대식



정말
망했다.



'예보는 100% 정확해야 한다'



일기예보는 매일 식용하는 유제품이나 갓 구워낸 빵에 비유할 수 있다. 마트에서 우유를 살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거나 제빵점에서 빵이 구워진 시간을 물어보는 것처럼, 일기예보의 가치도 시간에 따라 그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언제 발표한 정보인지 확인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방송, 신문, 인터넷 어디에서도 이 메타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주 새 자료로 업데이트하는 매체에 더 큰 신뢰를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야간이나 심야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강한 비나 큰 눈은 예측 선행시간이 한 두 시간도 채 안 되므로, 기상특보는 즉시 유통되거나 적어도 10~30분 안에는 침수 우려가 큰 주민에게 전달되어야 쓸모가 있다. 'YTN Weather'는 이 점에서 독특한 구매력을 가졌다. 하루 24시간 365일 날씨와 주변정보를 주 콘텐츠로 방송할 수 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보면 아무 때나 기상 정보의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 계속 예보의 과학적 성격과 새로운 예보 콘텐츠의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주어야 비로서 일기예보가 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로 다가갈 수 있다.

미국에서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현지 날씨와 최신의 기상 정보를 서비스하는 기상전문 웨더채널 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낙뢰와 우박과 토네이도를 동반한 강력한 비구름 일단이 시청자의 거주지 부근으로 접근하면, 뽀뽀 하는 경고음과 함께 텔레비전 배경화면이 별경계 바뀌면서, 기상특보와 행동요령을 담은 자막이 전 화면에 스크롤되며 수 분간 반복한다.

이제 일 년을 맞이한 한국판 웨더채널, 'YTN Weather'의 약진과 발전을 축하하며,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시청자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감동을 전하는 채널로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 또한 수시로 전문적인 기상용어와 배경지식을 널리 알려, 기상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과학문화를 확산하는데 예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우진 | 기상청 예보국장

구어 낸지 몇 분도 안 되어 주문한 피자가 문 앞까지 배달되는 것처럼, 딱딱딱한 긴급정보가 시청자의 안방에 전파를 타고 흘러오는 것이다. 몇 차례의 천둥소리와 창문을 두드리는 세찬 소나기의 두드리는 소리에 불식 간에 느꼈던 불안감이, 레이더 강우패턴의 동영상과 함께 상세한 비구름 예상정보를 통해 안도감으로 바뀌는 순간, 정보는 감동과 감사의 가치로 바뀌었던 경험과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지금은 웰빙푸드가 인기가 높지만 한 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어려웠고, 또 어떻게 응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 일기예보 기술도 우리 경제수준과 유사한 속도로 발전해 왔으며, 아직도 예보의 과학적 한계와 예측 불확실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예보는 100% 정확해야 한다'는 과도한 믿음이 항간에 널리 퍼져있다.

몇 세대 전부터 익숙해진 고기압이나 저기압의 개념에서 조금만 벗어나 제트기류와 날씨와의 관계라도 제시해 볼라치면 금방 시청자와의 눈높이가 달라 일기도를 해설하거나 예보 배경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일기예보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는 곳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계속 예보의 과학적 성격과 새로운 예보 콘텐츠의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주어야 비로서 일기예보가 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로 다가갈 수 있다.





의욕 넘치는 웨더 식구들과 정신없이 달려온 1년

정혜윤 | 과학기상팀

“호우주의보 어디야? 뭐 200mm 이상? 지금 어디에 얼마나 오는지 빨리 확인해봐. 인천에 호우주의보, 서울에 오후 2시부터 호우주의보. 헤드라인 잘 나가고 있는지 챙기고! 스크롤 바꾸고!” 출근해 20층 엘리베이터가 열리기가 무섭게 문밖으로 어김없이 들려오는 팀장님 목소리다!

“선배! 지금 비 상황을 좀 앞에 넣고 가고 싶은데요, 갑자기 비가 강해져서요, 스캔쓰고 현재 상황치고 갈텐데 어떻게 가야 할까요?” 11시 웨더투데이 시작을 앞두고 한 시간 전부터 맘이 급해진 임채훈 PD다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지금 비 상황 계속 바뀌는 시점이니. 실황, 누적강수량, 레이더, 시간 강수, 일기도 가기로 하고 유라랑 저랑 들어가 애드리브로 바로 현재 실황치고 갈게요” 흑흑 아 우리 왜 이렇게 바쁜 거야. ㅏ 나 머리도 못 했는데 ㅏ. 방송 전 메이크업과 머리는 사실 두 번째 문제다. 앵커, 캐스터로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 상황과 더 정확한 예보를 전달하려면 사실 머리와 메이크업은 10분~15분 만에 끝내야 할 때가 많다.

이후 20층 기상팀과 5층의 웨더팀 상황은 더 가관이다. 비가 많이 내릴 때, 또는 너무 더울 때 다른 부서 사람들을 상상도 못할 정신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하지만 웨더 채널 1년이 된 지금, 나를 비롯해 우리 웨더 식구들은 날씨를 즐기는 여유가 생긴 것 같다.



“유라야, 수현아, 은실아 경진아. 다 챙겼지?” 언제나 우릴 챙기시느라 바쁜 지현 선배의 목소리다.

“선배~ 오늘요 기상청은 오늘 100mm 예보했는데 케이웨더는 200mm 이상 예보했어. 내일이 기대되요ㅎㅎ, 누가 맞출까~~요?” 요즘 오후 한 시대 기상청과 민간예보를 비교해 방송하고 있는 김수현 캐스터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제 해맑은 표정으로 날씨를 즐기는 여유가 생겼다.

“선배 선배에~~ 저 오늘 비가 강하게 오는 지역을 먼저 얘기해야 할까요. 서울상황을 먼저 얘기해야 할까요~음?” 벌써 제법 워 선배가 돼 버린 한경진 캐스터도 항상 이렇게 늘어서는 말투로 날씨를 물어 온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11시 예보가 나오기 전 미리 날씨 상황을 체크한 한경진 캐스터는 앞에 서서 큰소리로 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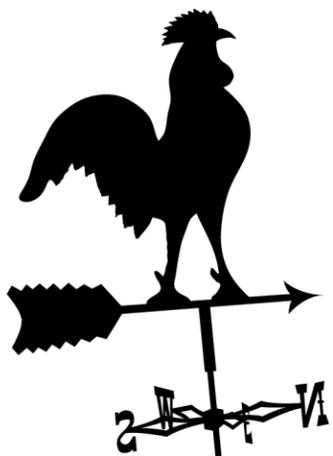
“아! 주목, 잘 들으세요. 강수량 더 늘었어요. 저한테만 비밀로 얘기해준 거니까! 주목하시고 적으세요!”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방송을 앞둔 이세나 캐스터를 비롯해 갑자기 모두를 빵 터뜨린 순간이었다. 가끔 아니 자주 우리를 웃게 하는 재주가 있는 한경진 캐스터는 이제 숙스러움도 잊은 채 큰소리로 앞에서 브리핑할 만큼 성장한 전문 기상캐스터가 됐다. 또 박은실 캐스터는 이런 캐스터들을 위해 산더미 같은 간식을

준비해 주는 센스 있는 우리의 행복 마스크트다.

그럼 5층은 어떨까? 본부장님을 비롯한 유투권 팀장님의 지휘 하에 PD들은 언제나 바쁘다. 매시간 의욕이 앞선 김보리 PD는 하이어나처럼 뭔가 뉴스 안에서 새로운 걸 시도해 보고 싶어 한다. 훈남 경주 PD는 아직 날씨 파악이 안 돼 헤드라인을 쓰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하나, 순길, 계절 PD들의 열정은 더 밝고 화려해진 프로그램으로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만만치 않은 열정으로 뚝뚝 뭉쳐있는 그래픽팀은 SB 제작과 각종 예쁜 그래픽, 어여쁜 3D 캐릭터까지 서슴지 않고 만들어 뉴스에 출연시키는 우리의 없어서 안 될 강팀이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뉴스를 더 빛나게 만들어 주는 우리의 AD 친구들도 너무 소중한 재산이다.

다들 제자리에서 블록 끼어 맞추듯 어느새 자신의 자리를 너무나 잘 지켜내고 있는 웨더 식구들을 보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진다. 기대 반, 걱정 반 조바심을 내며 TV를 켜고 채널을 고정해 놨던 작년 7월 1일, 0시가 넘어가면서 신기하게도 정말 웨더 채널이 생기고 날씨 그래픽과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나갈 때 이상한 전율과 뿌듯함이 느껴졌다.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1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캐스터들과 피디, 모든 웨더팀 식구들이 웨더 채널과 함께 성장했던 생각이 든다.





부릉부릉~ 취재의 시동을 걸어라!!!

김갑재 | 차량관리실 반장

흔히 배차실로 알려져 있는 차량관리실이 하는 일은?

취재를 위한 차량 지원을 합니다. 총무부 소속으로 취재와 중계차 운전자 지원과 원활한 배차 관리, 차량의 정비·점검 등 회사 차량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죠.

힘들었던 취재는?

한겨울 지리산 깊은 곳에서 카메라 트라이포트를 들고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6~7시간 산행하며 '곰'을 취재하려다 다했을 때, 태백산 깊은 산 속에서 눈 길을 오르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위 분들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창휴)

기억나는 취재 장소는?

북한 포격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연평도 출장 때... 마치 유령 마을처럼 느껴졌었죠. (오신탭)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북한의 포격으로 폐허가 된 연평도, 포격 사이렌이 울리면 외국 기자들은 긴장하며 허겁지겁 방공호로 뛰어가는데 국내 취재진들은 긴장은커녕 전혀 놀라지도 않고 하늘만 쳐다보는 모습이 색달라 보고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서민원)

칭찬하고 싶은 기자는?

친절하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기자가 최고입니다. 쟁쟁한 YTN 기자들 중에서도 고민철 차장과 정유진 기사를 꼽고 싶네요. (여러분 대답)

차량관리실 인기 사원은?

중계차량을 담당하는 서민원씨를 추천합니다. 초창기 부터 참여한 분으로, 칠순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추천합니다. (여러분 대답)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갑재 반장, 박기복, 최기정, 우중운, 서민원, 이상호, 한우덕, 김대성, 오신탭, 정한희, 송계중, 김영수, 서춘석, 지창휴

이럴 때 보람...박창혁, 이상호씨의 경험담

장애우날 특집으로 맹학교 학생들과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이 함께 2인용 자전거를 타고 경기도 팔당에서 강원도 한계령을 넘어 속초까지 1박 2일 동행하는 것을 촬영할 때 받은 감동이 기억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씨에 장애 학생들과 자전거동호인, 우리 제작진 모두가 느릿느릿한 자전거 속도를 맞춰가며 촬영하면서 위험천만한 일이 참 많았죠.

하지만 이틀 동안 장애우들과 자전거동호인이 2인 1조가 되어 고동을 이겨내고 힘겹게 한계령 정상에 도착해서 함께 포옹하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울컥했던 일이 보람으로 남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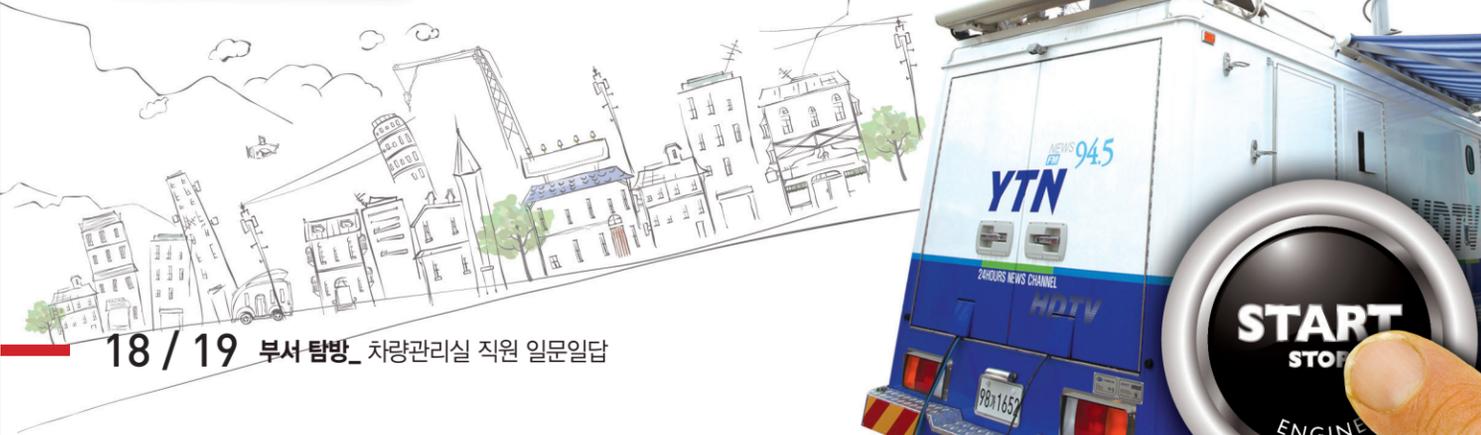


일할 때, 지치지 않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 있나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직접 취재하고 방송하는 분들의 고단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같이 동행하는 동료라는 생각을 갖고 던져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피곤함이 싹 달아난답니다.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차량관리실에서는 취재일정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휴일이나 공휴일을 앞두고 취재일정을 조금만 더 빨리 알려 주시면 취재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차에서 가급적 흡연을 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YTN 서울타워 이모저모

김다혜 | 홍보팀

서울의 중심 남산, 그리고 그 남산의 정상에 우뚝 솟아있는 YTN 서울타워. 구름과 맞닿은 곳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YTN 서울타워를 소개합니다.



전망대 5층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이다. 100분 동안 한 바퀴를 회전해 360° 서울 전체 모습을 앉은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전망대 3층

맑은 날 50km까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디지털 전망대이다. 동쪽은 아차산과 독섬, 서쪽은 국회의사당과 일산, 남쪽은 관악산과 잠실 올림픽 경기장, 북쪽은 북한산과 청와대를 볼 수 있다. 또 서울 명소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오디오 가이드'로 들을 수 있다.

전망대 2층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이 있는 전망대 2층에는

- 유럽 정통의 커피와 달콤한 케이크 향기가 은은히 퍼지는 '스카िका페'
- 서울타워를 찾아주신 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꿈이 가득한 '사랑의 메시지 타일'
- 아름답고 시원하게 펼쳐진 서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하늘화장실'
- 서울타워를 테마로 Hot item을 전시, 판매하는 '기프트 샵' 등이 있다.

전망대 1층

한국 전통의 맛을 뷔페 스타일로 즐기는 코리안 패밀리 레스토랑 'HAN COOK' 한국의 맛을 알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 만족하는 곳이다.

지상 2층 (광장)

서울타워의 명물인 '자물쇠 광장'이 있는 곳이다. 수많은 연인, 친구들이 사랑과 우정이 변치 않고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을 자물쇠에 적어 걸어 놓았다.

지상 1층 (광장)

많은 관광객이 머무르는 곳으로 기념품점, 커피숍, 편의점 등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몰려있다.

지하 1층 (로비)

전망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으로, 엘리베이터 외부와 내부에서 박진감 넘치는 영상인 '디지털 미디어 아트'가 상영된다. '테디베어 뮤지엄'은 꿈을 이용해 서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기전시관이다.

24 Hour News Channel



국내 대학생 출국 현황

자료: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
단위:명



다양한 화면과 이미지 효과로 프로그램은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정명렬 | 기술연구소장

그동안 세트의 배경으로만 사용됐던 대형 모니터는, 이제 터치 센서 기능이 도입되면서 진행자가 직접 조작하고 설명할 수 있어 방송용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스크린에 글씨를 직접 쓰는 터치센서까지 개발되면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기존 칠판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한 개의 터치만 가능한 싱글터치에서 양손 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판서가 가능한 멀티 터치스크린으로 발전한 것이다.

터치스크린시스템은 컴퓨터의 윈도우 환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유튜브나 트위터, 구글의 이미지를 움직이고 조절하는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졌다. 워드와 파워포인트에서 활용하는 막대바, 파이차트 등도 방송진행자가 상황에 맞게 직접 조작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만큼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방송 필수 장비로 자리매김했다.

터치스크린시스템은 뉴스브리핑이나 다양한 표출 효과를 나타내는 날씨방송, 그날그날의 주요 쟁점사항인 심층이슈 분석코너 등에서 활용하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기술연구소에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터치스크린시스템을 검토했으나 기술여건이 충족치 않아 보류했고 올해 4·11 총선 선거방송에 처음으로 활용했다. 선거개표방송의 한 부분인 '심층분석' 코너에서 3D화면과 결합한 그래픽 표출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지금은 그날의 주요 쟁점사항을 시청자에게 심층 분석해주는 <오늘의 이슈> 리포트 제작용으로 사용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진행자가 직접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 손으로만 가능한 싱글터치 기능에서 양손을 사용하는 본격적인 멀티터치기능도 개발 중이다. 또 동시에 여러 이미지를 노출하거나 터치를 하면 애니메이션 효과로 역동적인 화면 움직임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멀티터치에 판서기능까지 가미해지면 시청자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예정된 제 18대 대통령선거와 미국 대통령선거에 대비해서 멀티터치와 결합한 다양한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표출 방식과 VR(가상실현)기술을 활용한 가상스튜디오와 터치스크린을 결합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차세대 가상터치스크린 시스템도 연구하고 있다.

순회 특파원

열정과 경험만큼은 누구보다 청춘

1994년 9월 입사 후, 삼풍백화점, 쓰나미 등의 대형 사건·사고 등을 겪으며 지내온 YTN에서의 생활은 '다사다난' 그 자체였습니다. 외환위기 때에는 회사가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었고,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일어난 YTN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뉴스채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전을 거듭해온 YTN과 함께한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수송동에 첫 출근을 할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입사한 지 만 18년이 되고 있습니다.

입사 이후 십여 년을 데일리 뉴스와 가끔 기회가 생기는 특집프로그램을 만들던 저에게 '한국의 명산'이라는 프로그램이 저에게 맡겼습니다. 2007년 5월 7일 첫 촬영을 시작한 '한국의 명산'을 통해 저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한국의 명산'은 제 삶에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많은 상을 받았고, 그 상은 저에게 또 다른 열정을 불태우게 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데일리 뉴스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젊지 않은 나이라고들 하지만 열정과 경험만큼은 누구보다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도전이 개인의 발전은 물론 회사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최계영 | 촬영기사
(북중미, 호주, 아시아)



박기현 | 기자
(북중미, 호주, 아시아)

글로벌 사건기자로 활동해보는 것도...

'여권 유효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고...' 지난 주말, 서울 집에 들어서 여권과 여행용 세면도구 등을 챙겼다. 갑작스러운 출국 상황이 생기면 대구에서 바로 떠나기 위해서였는데, 괜히 마음이 비장해졌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사건팀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짐을 싸서 백령도와 연평도에 들어가곤 했는데도 해외로 급파되는 상황은 또 다른 긴장감을 주는 듯하다. '해외 재난상황이나 소요사태들은 연평도에 울리던 대피 사이렌과는 차원이 다르겠지?' 이런 감상도 잠시, 아내는 "너무 위험한 데는 가지마"라는 걱정 대신 "조금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다녀야지"라고 한 마디 던졌다. 아내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가 이렇게 고마우면서도 서운할 줄이야. 어쨌든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기대는 언제나 내 삶의 짜릿한 자극제가 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설렌다. 순회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사에 기여하고 사회에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 싶은 건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국적, 인종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고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수도권 사건기자로 뛰 어봤고, 지금은 지역의 사건기자로 지내고 있으니 이제는 글로벌 사건기자로 활동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아직 아침 신문에서 지역면과 국제면을 함께 보는 내 모습이 어색하지만 말이다.

처음부터 다시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 휴가지로 택한 홍콩의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30도를 웃도는 고온과 그 더운 공기를 짝 채운 습기. 그런 홍콩 시내를 더욱 뜨겁게 달군 건 시위 열기였습니다. 자치정부는 홍콩의 중국 반환 15주년 축하 행사를 열었지만 정작 홍콩시민은 반환 이후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후퇴했다며 거리로 나온 것이죠. 시민과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향해 천안문 사태 재평가 요구에 대해 돌발 질문한 기자가 경찰에 의해 쫓겨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인지 그날 밤, 아름답고 화려하기로 소문난 홍콩의 밤하늘을 30분 가까이 장식한 불꽃의 외침은 공허했습니다.



김지선 | 기자
(유럽, 중동, 아프리카)

호된 취재지시도 없고, 기사를 쓸 일도 없는데 언제부턴가 습관이 되어버린 '휴가지에서의 현장취재'. 직업병만은 아닙니다. 기자 지망생 때부터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갈 때면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갈등이 궁금해 요리조리 캐고 다녔으니까요.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란 의욕과 열정만 가지고 덜컥 지원했다면 겁 없는 젊은 기자의 너무 나이브한 생각일까요? 선임 순회특파원 선배에게 방탄조끼 사용법과 감전사하지 않는 요령에 대한 조언을 듣자니 '무식이 용감'이란 말도 실감 납니다. 처음부터 다시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Don't forget Europe, Don't hurry up!

낮설기만 했던 뷰파인더에 영상을 담고, 방송시간에 쫓기어 손과 등에 식은땀이 나도록 편집기와 씨름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루에도 30번씩 그만두고 싶었던 초년병시절! 뒤 돌아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촬영기자였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었다. 지금은 어떤 취재, 특집프로그램도 자신 있게 소화하는 촬영기자가 되었다. YTN에서 18년 동안 나 자신을 혹독하게 단련시켰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송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다양한 HD촬영장비와 NLE편집시스템을 이용해 퀄리티 높은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방송하고,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망으로 영상을 송출할 수도 있다. 지금도 속도가 경쟁력인 세상인 것이다.

이번에, 사내 순회특파원 모집에 지원하여, 유럽, 아프리카, 중동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촬영기자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를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동안 나에게 주어졌다. 2년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18년 동안 단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욕심내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취재를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계속 단련 시켜야겠다.



이승주 | 촬영기사
(유럽, 중동, 아프리카)

새얼굴 경력 앵커

사랑스러운 앵커가 되겠습니다!



류주현 연세대 기악과/바이올린
YTN의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류주현이 되겠습니다.

장민정 동덕여대 영문학 경영학
행운과 요행보다, 원인과 결과의 힘을 믿습니다. 낮은 자세로, 정직하게 소통하는 앵커가 되겠습니다!

진유현 중앙대 중어학과
하루빨리 신뢰받을 수 있는 앵커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북아의 화약고? 평안북도 철산

특종상 금상 취재기
북한
광명성 3호
발사보도

2012년 4월 13일 오전 7시 39분,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 10분 뒤인 오전 7시 49분, '뉴스 7'이 끝난 직후 속보 형식으로 1보를 보도했다. 미 CNN이 YTN을 인용해 전 세계에 타전하는 등 오랜만에 YTN의 진가를 알리는 완벽한 특종이었다. 이번 특종이 이루어진 계기는 국방 관계자들과의 적지 않았던 인연 덕분이었다. 필자로서는 몇 년 전부터 군 인사들과 정부기관 연구원, 교수들이 포함된 몇 개의 학회 활동을 해오고 있다. 처음에 원고청탁을 받았을 때 '무엇을 쓸까?'라는 고민이 많았다. 할 이야기도 적지 않지만 "저승에까지 밝히지 말아 달라"는 취재원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 밝히지 못함을 선후배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대신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가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이다. 사실, 이곳은 17세기 초부터 동북아 국제정치의 중심지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서기 1618년,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후금이 본격적으로 명나라에 대한 공세를 취하자 임진왜란의 생채기가 채 가시지 않았던 조선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1619년 사르후 전투(薩爾滸戰) 이후 요동에 거주하던 명나라 주민과 명의 패잔병들이 조선으로 흘러들어왔다. 이들을 요민(遼民: 명의 난민, 요동에서 왔으므로 불인 명칭)이라고 불렀다. 1621년 명나라 조정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만도 2만 명이었고 이듬해에는 10만 명에 이르렀다. 1621년 3월, 후금이 심양 등지를 점령하자 요동 지방을 지키고 있던 명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 1576~1629)은 명 주민과 남은 병력을 데리고 조선의 영토인 압록강 변의 진강(鎭江: 오늘날의 단둥 부근)까지 후퇴했다.

당시 조선의 군주 광해군은 모문룡으로 인해 조선이 병화를 입을 수 있음을 크게 우려했다. 1621년 12월(광해군 13년) 후금의 아민(阿敏)은 모문룡을 제거하기 위해 5천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왔다. 이 기습으로 요민 수백 명이 숨졌지만 모문룡은 용천 관아에 있다가 조선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간신히 탈출했다. 이듬해인 1622년 11월, 모문룡은 광해군의 권유에 따라 평안도 철산 앞바다에 있는 섬인 가도(假島)로 들어갔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인접에 있는 가도는 고려가 몽고 침략을 받

았을 때 서북면 병마영이 설치될 정도로 일찍이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후금의 처지에서는 자신들의 턱밑을 겨냥하고 있던 명나라의 모문룡을 제거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이것이 정묘호란(1627년)과 병자호란(1636년)으로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당시, 동아시아의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후금과, 국운이 쇠잔해지고 있었던 명나라 사이에 끼어 마치 너트 크래커(nut-cracker)속의 호두 같은 존재였던 조선은 자주적인 대외 정책을 펼칠 수 없었다. 슬픈 역사였지만 그것이 17세기 중후반 동아시아의 정세였고, 영화 활의 시대적 배경이 되기도 했다.

조선의 비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인조가 홍타이지에게 '삼배구고두레'의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거행한 이후 청나라는 1637년 그때까지도 가도에 남아있던 명나라의 패잔병들을 소탕하기 위해 조선에 수군 파병을 요청했고, 조선은 병선 백여 척과 임정업 장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수군 3천여 명을 징발했다. 15년 동안 청의 서진(西進)을 가로막았던 가도의 명나라 패잔병들은 그렇게 소탕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명나라의 군진(軍鎭)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조선과 명, 그리고 후금이 뒤얽혀 있던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가 무너진 것을 의미했다.

한민족의 비애가 서려 있던 그 평안도 철산군의 슬픈 망령이 나에게서는 광명성 발사 특종이라는 모양새로 나타났다. 21세기 동북아 정세를 뒤집으려고 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는 현실로 말이다.



김주환 | 제2팀

“미사일 발사

변화없다”

특종상 취재기

北 리근 국장 인터뷰 취재보도

말은 쉽다. 말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고 자유와 평등, 정의가 숨 쉬는 무지개를 당장 손에 짚 수 있을 것처럼 성찬을 베풀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과 맞닿은 문을 열고 나가면 걸음걸음마다 날카로운 자갈이 발밑에서 꿈틀대고 조금만 헛디디면 가시밭에 들어가 상처를 입기 일쑤다.

2010년 10월, 비가 내리던 영국 런던에 들어와 지국을 처음 개척하던 날도, 귓가에 총소리가 울리던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에서도, 소총을 든 반정부군을 땀 흘리며 설득해야만 했던 리비아 국경에서도, 진눈깨비 내리던 독일 베를린 북한 대사관 앞에서도, 특파원으로서 겪어야 하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독일 취재는 정보 공백에 가까운 상태에서 시작했다. 북한 리 근 미국 국장이 베를린에서 미국 아스펜 연구소 주선으로 미국 인사들과 비공식 접촉을 한다는 사실 하나만 손에 쥐고 출장을 떠났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베를린에 도착해 외교부와 주독 한국대사관에 연락해 취재했으나 북한 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듯 누구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결국, 무작정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가서 리 근 일행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전문용어로 ‘뺨치기’로 불리는 취재 방식은 경찰이나 법조 기자 때부터 몸에 익숙했지만 매서운 찬바람에 가끔 진눈깨비까지 내리는

북한 대사관 앞에서 대기 차량도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서서 버티야 하는 일은 노역에 가까웠다.

그나마 일본 방송사 취재진이 함께해 외로움은 덜 느꼈다. 한국 언론사가 가끔 일본 언론사에 북한 특종을 뺏기는 일이 있는데 현장에 진을 친 일본 취재진을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NHK와 후지 TV, TBS 등 주요 방송사마다 특파원과 한국인 통역, 기사까지 10명 가까운 인력을 여러 조로 나눠 돌리며 취재에 공을 들였다. 반면 자리를 계속 지킨 한국 언론은 YTN이 유일했다. 일본 언론에 저서는 안 된다는 자존심에 그들보다 먼저 나오고 늦게 들어가는 일정이 이어졌다. 런던 지국 카메라맨 김수동 씨는 대사관 앞에서 있다가 동양인처럼 보이면 무조건 달려가 카메라를 들이댔고, 대사관 근처에 버스가 지나가면 혹시 리 근 일행이 탔을까 봐 달음질하는 투지를 보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취재 사흘 만에 미국과 접촉을 마친 리 근 일행이 북한 대사관에 나타났다. 하지만 본게임의 시작일 뿐이었다. 리 근을 어떻게 인터뷰하느냐가 관건이었다. 북한 협상 전문가인 리 근은 출국을 앞두고 독일 외무성 등을 방문하면서 노련하게 취재진을 따돌렸지만, 공항으로 가는 길에 결국 모습이 노출됐다.

취재진은 베를린 공항으로 향하는 시내 도로에서 30여 분간 도심 추격전을 펼쳤다. 리 근 일행이 찬 차량을 쫓는 과정에서 일본 방송사 차량끼리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일본이 물량 공세를 퍼부었지만 공항에서 숨바꼭질하는 리 근을 발견해 “북한 미사일 발사 일정에 변화 없다”는 인터뷰에 성공한 언론사는 YTN이었다. 이번 대북 취재는 기억에 오래 남을 듯하다. 공을 인정받은 기쁨보다는 특파원직의 수고로움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움이 앞선다.

류충섭 | 유럽지국장



송사리와 제비가 돌아오는 농촌을 꿈꾼다

어릴 적 별명이 '송사리'였답니다. 기분 좋은 닉네임은 아니죠. 하지만 어쩔니까, '송충이'가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송사리를 찾아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4월부터 촬영을 시작했는데 이때는 겨울을 난 송사리가 산란을 앞두고 활발하게 움직일 때거든요. 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눈두렁이나 개울을 지날 때마다 눈여겨봤지만 없었습니다. 두꺼비는 몇 마리 발견했습니다. 그 많던 송사리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귀농'이라는 주제를 검토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귀농은 삶의 터전을 바꾸는 일입니다. 경제적 기반까지 옮기는 것을 '귀농'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수입원을 갖고 농촌에서 생활하는 것을 '귀촌'이라고 하죠. 요즘은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어서 '귀향'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20~30대 젊은이가 농사를 직업으로 삼는 것을 '취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통점은 콘크리트 빌딩 숲을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연이 병들어 있습니다. 비닐과 화학비료와 농약에 찌들어 있습니다. 대규모 기계농이 논생물이 살 수 있는 도랑과 둠벙을 없애버렸습니다. 메뚜기도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제비가 오지 않습니다. 판소리 '흥보가'를 다시 써야 할 판입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에 귀농귀촌 인구가 처음으로 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그 전 해 4천여 가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거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있다고 해석하게 됐습니다. 뭔가 큰 흐름의 변화, 즉 기삿거리가 생긴 겁니다. 전국을 다니며 다양한 귀농인을 만났습니다. 사업실패로 나락에 떨어졌다가 무일푼으로 귀농한 분도 있었고, 소비적 삶이 싫어서 또는 건강 때문에 귀농한 분도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도시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내려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농촌은 너그럽게 품어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마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동네 어른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툰 농부에게 조언도 해주고, 좋은 땅도 권해주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65세 이하면 청년회에 소속돼 젊은이 대우를 받습니다. 도시에서의 무기력한 삶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귀농인들이 도래하면서 농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급자족 위주의 농사를 짓는 귀농인들이 많아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이 줄었습니다. 유기농이 자연스러운 추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갖고 있는 도시와의 네트워크는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귀농인과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찾는 도시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교육분야에도 선순환이 시작된 곳이 꽤 있습니다. 폐교위기의 초등학교가 교사들과 귀농인의 협력으로 5년 만에 학생 수를 다섯 배로 늘렸습니다. 귀농인들이 갖고 있는 도시와의 네트워크와 재능기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공동체 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한 면에서는 귀농인들이 조합을 결성해 농산물 가공공장, 도서관, 육아시설 등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곳 면 소재지에 가면 무공해 치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돈을 모으고 노력봉사를 통해 만들어낸 '마실방'에서 생맥주와 함께 팝니다.

물론 아직 송사리가 돌아올 정도로 농촌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시골 땅값이 올라 귀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대목은 정부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을 살리는 농사가 사람을 살리고,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대안까지 될 수 있다면, 귀농 이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가 된 것 아닐까요?

송태엽 | 제작1팀

함께 고생한 양준호 차장과 스테프들 그리고 취재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ㅎㅎ



신감각 시사프로그램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분야에 상관없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보를 듣기만 하던 사람들이 기자, 논객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매일 아침 방송되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도 최근 전성시대를 맞았다.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들 중, 보도전문채널 YTN라디오의 대표선수는 누구일까? 바로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이다. 진행자인 김갑수의 이름을 들으면 탈렌트 김갑수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출발새아침의 새로운 진행자는 문화평론가 김갑수씨다. 사실 김갑수씨 이름 앞에 문화평론가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 그는 평소 다양한 분야에 대해 많은 식견을 보여왔다.

그런 그가 <출발 새아침>을 통해 본격적인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변신을 시작한 것이다.

Q. 청취자들에게 낭만논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시더군요. 이 타이틀이 어떠세요?

한국사회의 이념적 정치적 대립각을 넘어서 좀더 넓은 지평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취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진정한 낭만 논객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Q. 토론 프로그램 등에서 자주 빛긴 했었지만 전문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변신하는건 쉽지 않은 결심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프로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항상 외곽에서, 그리고 문화영역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각종 사회상과 정치적 변화과정을 주목해 왔습니다. 기회가 닿은 김에 아예 직접 정치과정에 발을 들여놓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싶어 흔쾌히 받아들인 겁니다. 특히 제 나이를 많이 의식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싶었는데, 언론매체를 통해 역할을 하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3개월째 접어드시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다면?

역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와의 인터뷰입니다. 이대표 쪽에서 제가 '색깔론' 공세를 편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에는 오랜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방송 진행자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대표에게 서운한 감정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Q.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건의 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충분히' 안겨준다는 점입니다. 신문기사는 기자의 주관이 개입하고 텔레비전에서는 아주 짧게 밖에는 본인의 목소리가 나갈 수 없습니다. 라디오의 장점은 생생한 목소리가 비교적 충실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인데, 다만 핵심을 비켜난 주변적 발언을 가지치기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수많은 시사프로그램 중에 <출발 새아침>만의 특징과 색깔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프로그램에서는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만, 이렇게 본격 시사프로그램 진행은 처음인 셈입니다. 타방송사의 우수한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이루면서 우리만의 장점을 갖기 위해 현재로서는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하는 단계라고 보아주십시오. 저희 제작진의 노력이 머지않아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장담으로 대답에 갈음합니다.

Q. 총선도 치렀고 곧 대선이 있죠. 많은 분들이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도 얻고 현안을 판단하는 기준도 갖게 될텐데요.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십니까?

지난 17대 대선 때 정책적 논점이 매체에서 실종되다시피 한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대선이 정책선거가 되기를 매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점, 정책내용의 반영에서 어떤 매체보다 앞서 나가도록 장을 열고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 대선진영의 후보 및 주요 인물들의 포장되지 않은 면모가 드러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항상 뉴스를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사회적 사안과 내 개인의 삶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32 / 33 콘텐츠 확대 YTN라디오의 대표선수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



김혜민 |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 PD

스마트시대 평생교육의 장(場)

디지털YTN 지식인재개발원 개원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스마트 시대에 디지털YTN은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식인재개발원을 개원했습니다. 디지털YTN 지식인재개발원은 기존 교육모델에서 벗어나 스마트 시대에 맞는 평생교육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당찬 포부 속에 출범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코칭인증교육을 특화 과정으로 정하고 그 밖에 시사, 문학, 교양, 과학 등 독창적인 지식서비스로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화 교육과정 코칭전문가과정은 20시간 코칭과정으로 ‘코칭의 기초와 핵심’을 담았으며 한국코치협회 인증 전문 프로코치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코칭(coaching)’이란 개인이 스스로 존재가치를 실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인적자원개발 기술(skill)’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칭의 한 분야인 ‘리더십 코칭’은 개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잠재능력 개발, 리더십 개발, 업무 실행력 강화, 경영 성과 및 고객서비스 등의 많은 영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코칭전문가과정은 프로코치를 목표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코칭기술(coaching skill)을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강사, 컨설턴트, 상담사, 중간관리자, 가정주부, 부모,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게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전 도구(tools)를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디지털YTN은 앞으로 전 임직원이 코칭교육을 수강해 프로코치 자격까지 취득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코칭교육 성과로 최고의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실현하여 조직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 경험이 많은 퇴직자, 은퇴자들은 프로코치자격을 취득 후에 정부관련 단체 및 봉사단체에서 재능기부 봉사를 실천하여 사회적 공헌활동으로 보람찬 노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학부모가 코칭교육을 받으면 부모가 바뀌어 자녀가 변하고, 자녀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며, 학교와 사회가 바뀌는 교육혁신을 통해 공교육의 변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디지털YTN 지식인재개발원은 창의성과 리더십 개발, 비즈니스, 자격인증, 인문·교양 등의 교육과정을 개발해 스마트 시대가 원하는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전문채널 YTN의 장점을 활용해 앵커,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등 방송미디어 취업준비생을 위한 고품격 교육과정과 뉴스영상촬영·편집자, 방송작가 등 방송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해 방송미디어 인재양성 산실로도 확대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디지털YTN 지식인재개발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숙 | 디지털YTN 미디어사업팀장



Photo News

YTN과 EBS가 7월 26일 업무협약을 맺고 과학콘텐츠의 제작과 보급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2/4분기 포상

특종상 금상 | 김주환 제2팀, 배성준 정치부 북한 광명성 3호 발사 보도 **특종상 동상** | 유승섭 유럽지구장 北 리군 공작 인터뷰 취재 보도 / 권준기 정치부, 김주영, 한동우 사회1부, 윤성수 영상취재1부 주택개 공연, 20대 후기 파산 보도 **우수프로그램상** | 이승훈 경제부, 정철우 영상취재1부 YTN스페셜(무역고속도로AEO) / 지정윤 사이언스TV본부 뉴스제작팀 박성원의 WHY&HOW **공로상** | 이상준 타워운영팀 국가중요시설 관리능력 향상 공로 / 이민우 편성운영부 주조정실 비상매뉴얼 개선 공로 **표창상** | 김다혜 홍보팀 영화PPF 및 견학 등 회사이미지 제고 / 이재호 사이언스TV본부 편집기획 및 프로그램 제작 기여 7.9

게시판

승진 | 국 상 대 우 김익진 경영기획실장, 윤두현 보도국장, 청명렬 기술연구소장 **부국장** 심창래 구매팀장, 인재영 팀장, 송경철 앵커팀장 **부국장대우** 조영윤 심의팀장, 박근표 미디어전략팀장, 이동현 기획총괄팀장, 김형근 인사팀장, 손재희 법무팀장, 김진석 총무팀장(겸 관제팀장), 김호성 매체협력팀장, 이양현 편성운영부장, 상수종 정치부장, 황선욱 사회1부장, 강홍식 강릉지구장, 김종술 영남취재본부장(겸 부산지구장), 김동우 청주지구장, 유종민 제주지구장, 임종열 문화부장, 조성용 영상편집부장, 채문석 선거방송TF팀장, 천상규 제작2팀장, 이성호 제작기술부장, 허창재 장비관리팀장, 신광호 사이언스TV본부 방송지원팀장 **부장** 정중석 미래전략팀장, 전병곤 마케팅2팀장, 보도국 오인식, 류재웅 뉴스기획팀장, 김응진 정치부, 강성욱 경제부장, 김태현 경제부, 김학우 사회1부, 이종수 국제부장, 이동우 편집2부장, 이광래 영상취재1부, 류재복 해외방송팀장, 김동후 인프라팀, 이건선 송출기술부, 문석호 장비관리팀, 기정훈 YTNDBM(겸 YTNDBM 데이터서비스팀장) **부장대우** 한정호 홍보팀장, 민병호 홍보팀, 윤진완 구매팀, 정태걸 마케팅기획팀, 이동원 문화사업팀, 정동훈 편성운영부, 김종국, 박홍구, 왕선택 정치부, 도경희, 박동일 대전지구, 박대근 대구지구, 강현석, 손재호, 이철근 부산지구, 조영권 전주지구, 진민호 춘천지구, 김진주 과학기술팀장(겸 웨더본부 기상팀장), 이광엽 LA지구장, 최재민 디지털뉴스팀장, 김정희 디지털뉴스팀, 김동민, 김성인 스포츠부, 범희철 그래픽팀, 김근구, 김대경, 이문세 영상취재1부, 이상모 영상취재2부, 정희인 영상편집부, 제작2팀 김주환, 사이언스TV본부 뉴스제작팀장 박경석 **차장** 이규일 미래전략팀, 서영진 인사팀, 정미숙, 최재일 총무팀, 박기용 마케팅3팀장, 함형진 보도국, 신성원 편성운영부, 배성준 정치부, 김기봉, 이승은, 이상훈 경제부, 권영희 문화부, 박희천 국제부, 신웅진 편집3부, 기내경 그래픽팀, 박민양, 이승환, 정철우, 최계영 영상취재1부, 양준모, 최영욱 영상취재2부, 이기래 인프라팀, 장승욱 송출기술부, 문정훈, 박치훈, 이상천, 이영재, 이정우, 전재성, 정성욱, 최광희 제작기술부, 송기선, 이상경 중계부, 정애숙 제작2팀, 오우철 해외방송팀 7.11.

입사 | 김은희 편성운영부 7.25 / 지경윤 그래픽팀 7.16 / 강 엘리사 글로브기획팀 6.27

퇴사 | 조현주 웨더본부 편성제작팀 7.20 / 김미연 편성운영부 7.6 / 박준수 영상취재1부 7.3 / 서훈덕 타워운영팀 6.30 / 임종률 스포츠부 6.11 / 김윤희 차장대우 그래픽팀 6.10

전보 | 박성호 글로벌뉴스센터장 영어뉴스팀장 겸임 7.11 / 박기현 대구지구, 최계영 차장대우 영상취재1부 순회특파원(북중미,호주,아시아), 이상주 차장 영상취재1부, 김지선 제작2팀 순회특파원(유럽,중동,아프리카) 6.29 / 박순호 차장대우 정치부, 이지은 경제부, 한성호 차장대우 스포츠부, 김선희 차장 편집1부 6.13